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선원의 대담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궁적역> 편집자 * 본보료: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 담당자 및 * 인터넷: www.hamnam.org 또는 한양대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405호
서기 2008년 1월 22일 수요일 29

법공양 페이지

어려운 것 닦치면 닦칠수록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알아야

▲ 질문자: 제가 신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둡고 자하는 것은, 우선 지금 제가 취해 있는 상황이 힘이 드니까 신신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나왔는가 하는 점을 좀 어렵고 싶었던 것입니다.

▲ 스님: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일찍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타나 나오는 거니까 그걸 해결 못하면 건건이 꼬일면서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벌여놓은 거니까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나오는 것도 자기가 지어 놓은 것이고, 모두 물질적으로 처참하게 그냥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 뿔으면 또 떨어질 건데도 불구하고는 것도 모두 자기가 지어놓은 것이고, 개를 모순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자기가 지어놓은 것이고, 부자로 사는 것도 자기가 지어놓기 때문에 지금 부자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받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닦치면 닦칠수록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알고 내가 다 지어냈으니까 나오는 거지, 이게 다 공부할 수 있는 재료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놓고 간다면 다스릴 그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온 명이나 팔자나 명계성·세간성 또는 업보성·인과성이 다 풀려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바로 지금 하나 하나 없애고 가는 겁니다. 모두.

▲ 질문자: 예, 제가 스님의 말씀을, 지금 현실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오히려 수행의 재료로 삼아서 공부해 나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 스님: 예, 사심인 걸요, 뭐. ▲ 질문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어느 도인의 말로는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태어나는 해도 이 땅이 권력상징의 기운이 있는지라,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의 인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보아도 그렇고, 나라를 망치거나 사업을 실패할 때도 적이나 경쟁자보다는 같은 민족이나 친한 사람의 해침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은 이런 점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친한 사람들과 해치려는 마음이나 시기심이 더 강한지, 또 이런 국민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요?

▲ 스님: 그런데 그런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국민성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풀집모만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정신계의 퇴격음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도 오히려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바깥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보배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서지 않는 법이요. 그래서 그걸 찾지 못하고, 만약에 나왔잖아 하더라도,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치위쳐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관계상이 마음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려 나가서 떡 먹는 얘기를 했습니까. 중국의 왕이 "음, 조선을 치면 내 나라가 말하겠구나." 했다는 소리 말입니다. 그럴 한번 거만하게 생각해보세요. 그 뜻이 안 들어갑니까? 고개를 무시하게요. 그러니까, 그 새끼와 같이 생면은 풀이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비추어볼 때 전력이 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전력이 다 통하게 돼있어요. 어떤 거지라 끌어쳐도 전력은 전력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볼 바퀴는 그대로 세계적으로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볼 바퀴와 상대의 볼 바퀴가 한데 합치면 풀이 아닌 풀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를 막판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게 될 것을 희망하면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사

가 속이 상해서 병이 들거 볼,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는 하지만 그것은 효(孝)이 때문에 거짓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거짓은 거짓이 아니라라는 거죠. 또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분 계세요? 다 못 하고, 그것이 지나쳐 보일 때가 있었습니까. 고기를 먹는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술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그렇습니까.

▲ 스님: 그래요. 모든 게 그렇죠. 밥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사는 거, 먹는 거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공생 공심 공공 공재 공식화하고 원자 만물이 다 그렇게 나투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죠?

▲ 질문자: 예, ▲ 스님: 그렇으니 그렇게 닦쳐오는 대로 합 일을 해야하고 안 할 일만 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내세울 게

▲ 스님: 그래요. 모든 게 그렇죠. 밥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사는 거, 먹는 거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공생 공심 공공 공재 공식화하고 원자 만물이 다 그렇게 나투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죠?

▲ 질문자: 예, ▲ 스님: 그렇으니 그렇게 닦쳐오는 대로 합 일을 해야하고 안 할 일만 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내세울 게

부인할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뭇년 간의 마음공부가 수행하는 데에 오히려 방만과 자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계율이 걸리지 말라.'고 하니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가법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지나쳐 보일 때가 있었습니까. 고기를 먹는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술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자제하려고 말하고 싶어도 왜 걸리느냐는 상부적인 반응이 살아서 아예 모든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너무 헌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싫어서 난감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매사에 걸리지 않는 자재로움을 이

악업 모두 없애려면

인내와 물러서지 않는 마음

실천적이고 평등하고

이해성있고 지혜로워야

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고 권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스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고, 스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스님: 그러죠. 예가 갓 태어나서 씹어 먹을 이가 하나도 없는데 고기를 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죠. 그리고 어른은 씹어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구요. 그거와 같이 마음공부를 진지로 하면서 그 자리에 맡기고 진짜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먹는 것이 그 무명을 벗겨주는 일이지만 그런 마음의

산간 절에서 스승이 다 죽게 됐는데 제자가 생각을 하니 어떻게 밥을 닦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치어도 못하는 분에 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미를 들고 물을 들고 나왔어요. 지렁이를 수 없이 잡아서 그냥 툭 고아가지구서 그거를 채에다 받쳐 가지고 "지육열 가도 내가 갈 테니까 지육을 보내내서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갖다가 드러니까 "이게 무슨 물건인데 이렇게 맛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풀뿌리를 고은 물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병이 다 나아서 아주 건강하게 도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풀뿌리라고 했던 그 제자는 지육에 갔었네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거짓 아닌 거짓으로 회(悔)가 된다 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자기가 죄를 받고 죄를 안 받고 그럴 때로서 오직 자기 스승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들을 다 죽였다면 그런 죽은 게 아닙니다. 그나 끝마루 인간으로 현상이 전부 된 거죠.

예나하면 풀을 수십 마리를 죽였는데 닭 마음을 한데 합치면 하나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뜻은? 닭 수요대로 닭이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 화(化)하는 게 아니고, 닭 30마리씩, 30마리 한데 합쳐서 한 마리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렁이가 수십 수백 마리라 해도 그것은 한 사람으로 인간 현상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 는 안 보이는 부처님의 손들이 다 응시(應身)으로 화(化)해서 응현(應現)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게 험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모르는 사람한테는 살생이지만 그런 살생이 아닌 것이죠.

▲ 질문자: 그런데 이 문재와 관련해서 왜 그게 벗어났다 힘이 드느냐 하면

30년으로 계속

29면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남 경허스님은 무어(無碍行을 많이 하셨다지요. 또 얼마 전에 알반에 드신 성철스님은 그 입장을 조금 배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허스님의 무애행 그 자체는 긍정을 하시지마는 일반 대중들에게 비치는 데는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무애행을 권장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요.

▲ 스님: 그게 두 가지로 요약돼요. 그거를 자기가 알려주도 증생들에게 비쳐서 나쁜 영향으로 누(累)가 되지 않게 하지 그랬느냐 하고 그걸 무마하게 생각을 하겠지요.

▲ 질문자: 네, ▲ 스님: 또 한 가지, 경허스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만 생각해서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뛰어넘어라 하구서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여주고) 든 겁니다.

▲ 질문자: 예, ▲ 스님: 그러니까 어떤 것이 높으냐 하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다 똑같으니가 귀피(귀피)요.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왜 저주 모르는 사람들이 누(累)가 되게 비치게 하느냐 걱정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요...

▲ 질문자: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 스님: 아이, 그러니까요. 이걸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로, 먹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뼈다귀를 들고 술을 버리더라도 담아서 들고, 뼈다귀 든 거는 모든 증생들을 제도하고 건지고 하늘을 받치는 기운이 됐고, 하나는 수백마 쿨처럼 들이기가느니라 하는 게 보여준 겁니다. 할 수 없는 증생들에게 앙심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게 뜻을 본다면 끊임 없이 돌아가는 이치를 가르쳐주는 법이 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대로 공부요, 공부 아예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 도리를 아신다면 여러분도 이

모든 것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기에 누구를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

하게 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공명이 부유이다 하는 게 한 구명에서 나오는 거지 구명애

▲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 말이 다 미처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마음공부의 일차적인 목적은 선행

▲ 질문자: 스님, 오늘도 이렇게 밝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할 요지를 다 잊어버려서 마음에서 다대로 나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모든 것은, 천번에 걸린 드림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로 아는 것보다 단 한 자라도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나 흑이나 그러는 제 마음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것은 "저것은 아니야." 그리고 "저저 봐라 된다." 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은 그것까지도 다 수용해야 되게 알았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이지를 알아서 그러는지 어찌는 지 거기에서 약간 명통고 있기에 그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 스님: 긍정적일 일은 해하죠? ▲ 질문자: 네, ▲ 스님: 네, 그런데 부정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죠?

▲ 질문자: 네, ▲ 스님: 그렇게 벌써 자신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걸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질문자: 네, ▲ 스님: 그게 도반이죠. 그 알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안

▲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 말이 다 미처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마음공부의 일차적인 목적은 선행

▲ 질문자: 스님, 오늘도 이렇게 밝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할 요지를 다 잊어버려서 마음에서 다대로 나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모든 것은, 천번에 걸린 드림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로 아는 것보다 단 한 자라도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나 흑이나 그러는 제 마음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것은 "저것은 아니야." 그리고 "저저 봐라 된다." 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은 그것까지도 다 수용해야 되게 알았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이지를 알아서 그러는지 어찌는 지 거기에서 약간 명통고 있기에 그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 스님: 긍정적일 일은 해하죠? ▲ 질문자: 네, ▲ 스님: 네, 그런데 부정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죠?

▲ 질문자: 네, ▲ 스님: 그렇게 벌써 자신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걸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질문자: 네, ▲ 스님: 그게 도반이죠. 그 알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안

▲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 말이 다 미처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마음공부의 일차적인 목적은 선행

"주인공, 뿌리야!

너만이 네 몸뚱이 병 고칠 수 있어."

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자세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그거 다스려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거 한 마디만 걸(纏)하려고 남이 그러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공이다 들어내고 너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 그 사람이 본래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 하구서 자기 주인공에 봤을 때에 그 사람도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져야죠. 그리고 그 뒤에 말 한마디도 할 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능음을 할 때 차례차례로 능을

▲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 말이 다 미처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마음공부의 일차적인 목적은 선행

▲ 질문자: 스님, 오늘도 이렇게 밝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할 요지를 다 잊어버려서 마음에서 다대로 나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모든 것은, 천번에 걸린 드림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로 아는 것보다 단 한 자라도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나 흑이나 그러는 제 마음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것은 "저것은 아니야." 그리고 "저저 봐라 된다." 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은 그것까지도 다 수용해야 되게 알았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이지를 알아서 그러는지 어찌는 지 거기에서 약간 명통고 있기에 그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 스님: 긍정적일 일은 해하죠? ▲ 질문자: 네, ▲ 스님: 네, 그런데 부정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죠?

▲ 질문자: 네, ▲ 스님: 그렇게 벌써 자신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걸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질문자: 네, ▲ 스님: 그게 도반이죠. 그 알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안

▲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 말이 다 미처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마음공부의 일차적인 목적은 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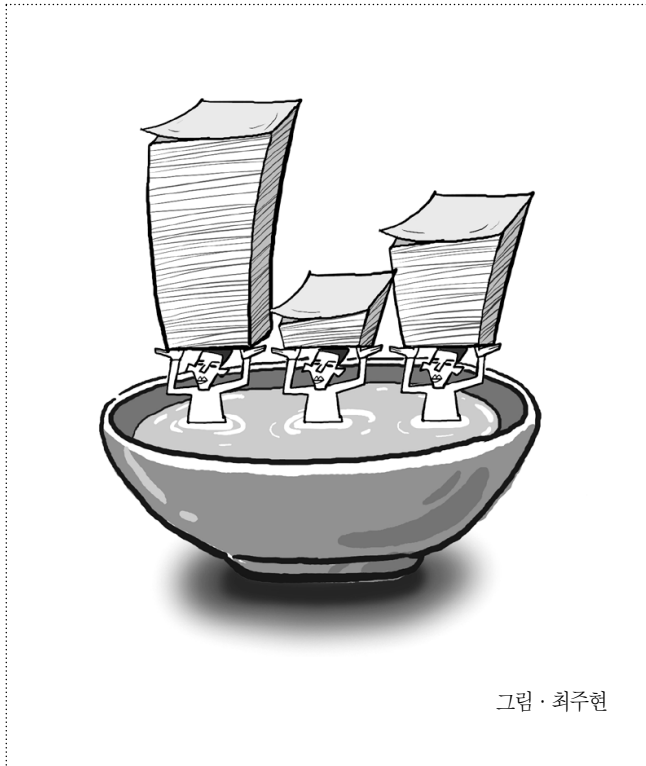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게 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공명이 부유이다 하는 게 한 구명에서 나오는 거지 구명애

▲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 말이 다 미처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마음공부의 일차적인 목적은 선행

▲ 질문자: 스님, 오늘도 이렇게 밝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할 요지를 다 잊어버려서 마음에서 다대로 나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모든 것은, 천번에 걸린 드림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로 아는 것보다 단 한 자라도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나 흑이나 그러는 제 마음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것은 "저것은 아니야." 그리고 "저저 봐라 된다." 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은 그것까지도 다 수용해야 되게 알았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이지를 알아서 그러는지 어찌는 지 거기에서 약간 명통고 있기에 그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 스님: 긍정적일 일은 해하죠? ▲ 질문자: 네, ▲ 스님: 네, 그런데 부정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죠?

▲ 질문자: 네, ▲ 스님: 그렇게 벌써 자신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걸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질문자: 네, ▲ 스님: 그게 도반이죠. 그 알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안

▲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 말이 다 미처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마음공부의 일차적인 목적은 선행

을 하죠? 차례차례 능을한 대로 먼저 한 거부터 하죠. 그리고 나중에 한 거는 맨 끝으로 나오죠. 그렇듯이 여러번도 과거에 지은 대로 능음이 돼서 차례차례로 떨어져 있다고 할까요? 떨어진 것이 차례차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많이 많이 쌓인 사람이 있고 적게 쌓인 사람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 사람은 저렇게 잘 된게 나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하고 오는 사람한테는 다른 말 없이 "정상이 지극한 때."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업이 너무 쌓여 있으면, 잘 놓아서 모두 다 녹아야, 그렇게 나온 제자리에서 되나야 알서서 일찍이 게 자주 없 어지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제 거만하게 반 다 됐으면 속으로 '야, 언제 거만거만 다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속 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되게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나쁜 고집과 쌓이고 쌓인 악업들이 모두 차례차례로 없어지려면 좀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심천적이요 평등하고, 이해성 있고 지혜롭고 이 래야만 이거를 무난히 다 깨지시킬 수가 있죠. 세로 세로 마음으로 입력된 게 나을 시기가 될 때까지 말아야요.

▲ 질문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 스님: 선배를 올려선 질문자에게 삼정(三正)을 일제(一頂)로 포함해서 하나로 합해서 하면 좋구요. 아주 자유 스러이 많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거든요. 하허하.

▲ 질문자: 세상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어느 자식 부모님의 병원에 대해서 근심 없는 지식을 얻고 싶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또 대학병원에서 깨어있는 진단을 받으셨 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여지껏 살아오면서 서 좋은 것도 많이 하였고 율게 살아왔고 그 제 나뉠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율게 살기를 항상 말씀하시오 고 그러셨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육신의 집을 고치기 위해 차차 자꾸 되거든요. 오히려하게 하는 사람도 아버지질 않게 마음이 되죠.

그래서 바라라는 것이 아니라 건러는 겁니다. 약한 거를 버리게 되면 또 인과가 돼서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을 그냥 뽕당 다, 하나는 감사하게 놓고 하나는 그냥 되풀이 되라 이겁니다. 남이 그러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공이다 들어내고 너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 그 사람이 본래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 하구서 자기 주인공에 봤을 때에 그 사람도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 스님: 그렇기 하신다면 아주 다른 거는 말고라도 내 깊은 마음 속에 '주인공 뿌리야, 너만이 네 몸뚱이 병 고칠 수 있어.' 하고 그거 한 마디만 걸(纏)하려고 남이 그러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공이다 들어내고 너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 그 사람이 본래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 하구서 자기 주인공에 봤을 때에 그 사람도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져야죠. 그리고 그 뒤에 말 한마디도 할 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능음을 할 때 차례차례로 능을

▲ 스님: 긍정적일 일은 해하죠? ▲ 질문자: 네, ▲ 스님: 네, 그런데 부정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죠?

▲ 질문자: 네, ▲ 스님: 그렇게 벌써 자신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걸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질문자: 네, ▲ 스님: 그게 도반이죠. 그 알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안

▲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 말이 다 미처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마음공부의 일차적인 목적은 선행

▲ 질문자: 스님, 오늘도 이렇게 밝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할 요지를 다 잊어버려서 마음에서 다대로 나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모든 것은, 천번에 걸린 드림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로 아는 것보다 단 한 자라도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나 흑이나 그러는 제 마음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것은 "저것은 아니야." 그리고 "저저 봐라 된다." 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은 그것까지도 다 수용해야 되게 알았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이지를 알아서 그러는지 어찌는 지 거기에서 약간 명통고 있기에 그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 스님: 긍정적일 일은 해하죠? ▲ 질문자: 네, ▲ 스님: 네, 그런데 부정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죠?

▲ 질문자: 네, ▲ 스님: 그렇게 벌써 자신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걸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질문자: 네, ▲ 스님: 그게 도반이죠. 그 알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안

▲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 말이 다 미처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마음공부의 일차적인 목적은 선행

▲ 질문자: 스님, 오늘도 이렇게 밝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할 요지를 다 잊어버려서 마음에서 다대로 나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모든 것은, 천번에 걸린 드림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로 아는 것보다 단 한 자라도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나 흑이나 그러는 제 마음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것은 "저것은 아니야." 그리고 "저저 봐라 된다." 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은 그것까지도 다 수용해야 되게 알았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이지를 알아서 그러는지 어찌는 지 거기에서 약간 명통고 있기에 그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 스님: 긍정적일 일은 해하죠? ▲ 질문자: 네, ▲ 스님: 네, 그런데 부정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죠?

▲ 질문자: 네, ▲ 스님: 그렇게 벌써 자신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걸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질문자: 네, ▲ 스님: 그게 도반이죠. 그 알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안

▲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 말이 다 미처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마음공부의 일차적인 목적은 선행